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MOONCHILD

가제 : 달의 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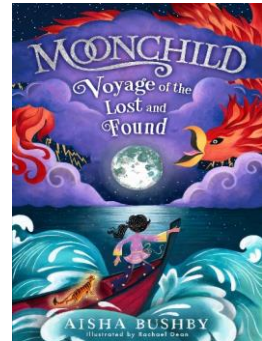
저자 : Aisha Bushby

출판사: Egmont

발행일: 2020년 8월 6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모험



* 영국에서 9 천부 이상 판매고를 기록하였으며 아마존 리뷰 78개중 평균 4.8점을 받은 2020년 CILIP Carnegie Medal과 FCBG Award 후보작이자, 영국 신문 가디언지 선정 '올해 최고의 책'으로 선정 된 데뷔작 『A POCKETFUL OF STARS』의 저자의 신작

지평선 너머에 있는 사하르 반도는 지도에조차 없는 미지의 장소로 결코 아무나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열 두 살 소녀 아미라는 바로 이곳에서 바다 마녀인 두 엄마들과 함께 항구와 항구를 오가며 약재와 물약들을 팔러 다니며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미라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나무르와 함께 여느 때와 같이 배를 타고 가던 중 큰 폭풍을 만나게 되고 난파 된 곳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된다. 하지만 아미라는 그곳에서 나무르를 잃게 되고 나무르를 찾기 위해서는 마법의 장소로 모험을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아미라는 나무르를 찾아 낼 수 있을까? 떠오르는 신에 작가가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영감을 얻어 쓴 판타지 모험 소설이다.

다우 배(삼각형의 큰 돛을 단 아랍 지역에서 타는 배) 돛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배 위의 오두막 속 닭과 임신한 염소는 평소보다 더 크게 울부짖었고 아미라와 아미라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그녀의 정령인 고양이 '나무르'는 기압계를 살펴 보며 폭풍의 진행 상황을 지켜 보고 있었다. 여기서 '정령'이란 새벽에 태어난 존재들로서 자신이 원하는 동물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그들은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다른 생물들이 성장하고 번성할 수 있게 돕는 존재들이었다. 하지만 이런 존재들과 달리 어둠에서 태어나 이 세상에 두려움과 증오를 퍼뜨리는 악한 생명체들 또한 이 세계에 존재하기 마련이었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정령들 역시 어둠의 생물들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사실 정령들은 그 어떤 존재들보다 인간의 곁에서 인간을 충실히 도왔고 특히 어린 아이들이 원하면 기꺼이 그들을 보살피며 도왔다.

덕분에 아미라 역시 나무르만 있으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도 언제나 거뜰히 헤쳐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나무르는 평소와 다르게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었고 왜 바람이 슬픈 늑대처럼 울부짖는지, 왜 이렇게 자주 번개와 천둥이 내리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눈치였고 더 나아가

구름과 비 그 너머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또한 나무르는 눈에 희미하게 보이기만 하는 때가 종종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나무르는 뼈, 몸체, 피부, 털 손으로 다시 자기 모습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리고 요즘 들어 자주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지금은 아예 실종 된 상태였다. 아미라는 나무르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심장이 바늘에 찔린 것 같은 크나큰 고통에 사로 잡혀 있었다. 아미라는 나무르를 찾기 위해서라면 오두막 속 동물들을 다 버리고 세상 끝까지, 달 끝까지라도 갈 수 있었다. 나무르는 그녀의 것이었고 그녀는 나무르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아미라와 나무르는 거대한 굴에서 함께 태어난 사이었는데 어느 날 아미라의 마녀 엄마 던야가 낚시를 하러 갔다가 바다에서 열린 파란색과 보라색이 섞인 물체를 끌어올렸고 바다는 던야에게 그 물체가 자신이 주는 선물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아미라와 나무르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날 이후 아미라와 나무르, 던야는 가족이 되었고 아미라는 나무르와 모든 것을 함께 했다. 아미라는 배 바깥을 둘러 보았지만 세차게 내리는 빗줄기 때문에 아무 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때 엄마 던야가 아미라를 불렀고 아미라는 엄마에게 오두막 속 동물들을 기둥에 안전하게 묶고 있는 사이에 나무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렸다. 던야와 아미라의 또 다른 엄마 자밀라는 배의 돛을 끌어내리며 폭풍에 맞서고 있었고 아미라 역시 그들을 돕다가 넘어져 다치고 말았다. 그리고 그 때 마침 자밀라는 빗줄기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육지를 찾아냈다. 하지만 아미라는 여전히 나무르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애타게 찾고 있었다. 아미라는 나무르가 혹시 배 아래로 떨어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두려웠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미라는 실신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나무르를 찾아냈다. 그리고 나무르를 다시 품 안에 안은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커다란 파도가 배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덮쳐버렸다.

정말 다행히도 아미라와 두 엄마들, 나무르는 무사히 근처 육지에 도착했다. 아미라는 간만에 새로운 육지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덕분에 잔뜩 신이 나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미라는 나무르와 육지를 돌아다니다 길을 잃고 말았고 금빛으로 빛나는 물고기가 들어 있는 어항을 안고 있던 '레오'라는 소년을 만났다. 아미라는 마치 불처럼 타오르고 있는 같은 그 황금 빛 비늘을 보자 그 물고기 역시 정령이라는 것을 단 번에 알아챘다. 아미라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던 레오에게 그 황금 물고기 '세맥'과 나무르가 정령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아미라는 레오와 친해지면서 자신의 정신적 동반자들이 날로 강해지고 있는 신비로운 폭풍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무르가 실종 되자 아미라는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찾을 수 있다는 한 마법의 장소로 그를 찾아 떠났다. 그리고 그 곳에서 아미라는 달로부터 힘을 얻어 살아가는 '달의 아이들'과 정령의 관계,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발견하게 된다.

<저자 소개>

아이샤 부시비 (Aisha Bushby)는 가슴 아픈 감동적인 이야기와 잊을 수 없는 캐릭터를 마법 같은 이야기 속에 녹여내는 저자이다. 그녀의 작품 『A Change is Gonna Come』은 YA Book Prize Special Achievement Award를 수상한 한 선집에 수록되었다. 또한 평단의 극찬을 받은 데뷔작 『A Pocketful of Stars』는 여러 문학상 후보에 오른 바 있다.

제목 : MICAH MCKINNEY AND THE BOYS OF SUMMER

가제 : 미카의 여름과 소년들

저자 : Nina Chapman

출판사: Capstone Editions

발행일: 2019년 11월 4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성장 소설



*** 갑작스러운 엄마의 죽음으로 인해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세상의 진실과 어려움에 대해서 점점 깨닫게 되는 소녀가 겪는 다양한 변화들과 우정, 십대들의 사랑, 정체성 문제에 대해 진지하지만 유쾌하게 다루고 있는 이야기**

열두 살, 미카 맥키니는 아빠와 함께 불행했던 과거는 뒤로 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새로운 곳으로 이사 오게 되었다. 이번 여름 미카는 곧 7학년이 되기 전, 사랑하는 엄마 없이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카는 세 명의 이웃 소년들과 친해지게 된다. 미카는 상실로 인한 상처와 과거를 뒤로 하고 사춘기와 몸의 갑작스러운 변화, 새로운 시작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영화 ‘퀸카로 살아남는 법’이 생각나는 이야기인 동시에,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한 소녀의 유쾌하고 감동적인 여정을 그린 소설이다.

7학년 새 학기가 시작 되기 81일전, 미카는 새로운 집, 새로운 마을에서 마침내 축구복을 다 버리고 멋진 가슴과 함께 스키니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미카는 곧 상상에서 빠져 나무 아래에서 깜빡 잠이 들었고, 한 낮선 소년들의 목소리에 화들짝 잠에서 깬다. 그 소년들은 이웃 집에 살고 있는 루크와 그의 친구 라이언과 조쉬로 장난스레 웃으며 자신들을 소개했다. 하지만 미카는 곧 집으로 달려 갔고 아빠와 마저 남은 이삿짐들을 정리하던 중 혹시나 엄마가 남겼을 지도 모르는 그림들을 찾아보았다. 이년 전 갑작스러운 자살로 생을 마감한 그녀의 엄마는 손에 닿는 모든 것에 그림을 그리곤 했는데 이년이 지난 지금까지 엉뚱한 곳에서 엄마가 숨겨둔 그림들이 발견 되곤 했던 것이다.

다음날 잠에서 깬 미카는 향수병을 떨쳐버리기 위해 서둘러 헬멧을 쓰고 자전거에 올라탔다. 자전거를 타고 있자니 미카는 이전에 살던 동네에서 가장 친하게 지냈지만 지금은 완전히 낯남이 된 리비가 생각났다. 미카는 당시 자전거를 타고 지날 때마다 리비네 집을 지나쳐야만 했는데 그 때마다 리비와 리비의 새 친구들은 헬멧을 쓰고 자전거를 타고 있는 미카에게 그 모습은 전혀 여성스럽지 않다며 놀리거나 면박을 주곤 했다. 미카는 그 아이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 위해 애쓰던 중 그만 길가에 놓여 있었던 롤러블레이드에 걸려 자전거에서 넘어지고 말았고 뒤에서 누군가가 미카에게 괜찮냐고 묻는 소리를 들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 아이는 귀여운 노란색 탱크탑을 입은 예쁜 소녀였고 미카는 부끄러운 모습을 들리고 싶지 않아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그 소녀는 미카에게 다가 왔고 남동생에게 대신 롤러블레이드를 치워 달라고

했지만 그가 롤러블레이드를 그냥 두는 바람에 생긴 일이라며 사과했다. 루카는 그 소녀가 자신의 또래처럼 보이긴 했지만 자신과는 달리 큰 가슴에 날씬한 몸매를 가졌다는 것을 보자 은근히 질투가 났다. 하지만 메간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소녀는 너무나 친절하게도 직접 자신의 집으로 그녀를 데려가 직접 상처 부위를 소독해주고 반창고까지 붙여주었다. 그리고 미카는 그 집에서 얼마 전 보았던 루크가 셔츠도 입지 않은 채 자신을 보며 헐쩍 웃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루크는 메간의 쌍둥이 남동생이었던 것이다. 메간은 루크와 자신 역시 곧 7학년이 될 것이며 미카와 같은 학교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해주었고 미카에게 다음에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자며 미카를 집까지 직접 데려다 주었다.

집에 돌아온 미카에게 미카의 아빠는 자신이 출근한 사이 미카가 자유롭게 온종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수영장 멤버십 이용권을 선물했다. 첫 수영을 하러 간 날, 미카는 거울 앞에 서서 한참 시간을 보냈다. 분명 몸에서 변화가 시작 되고는 있었지만 미카가 꿈꿔 왔던 동그란 모양의 예쁜 가슴 대신 통통한 몸과 뺏살만이 눈에 들어왔고 유독 자신만 이런 몸을 가지고 고민에 빠져 있는 지 알고 싶어졌다. 미카는 이제 너무 꼭 끼게 되 버린 수영복을 억지로 입은 채 물 속으로 뛰어 들었다. 하지만 미카는 그곳에서 절대 만나고 싶지 않았던 메간을 만났다. 메간과 메간의 친구들은 모두 잘 빠진 몸매에 예쁜 비키니까지 입고 있었다. 메간의 친구들인 애바와 트리시는 옛날에 리비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미카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역겹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게다가 메간과 친구들은 미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나 연애, 키스, 화장품, 큰 패드가 들어간 브라지어와 같은 미카의 관심사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카는 대화에 끼어들 틈조차 없었다. 미카는 자신의 빠져 나온 살들을 수건으로 가리며 그 이야기들을 듣는 대신 모두가 놀라며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 물 속으로 뛰어 들었고 모든 잡념들이 사라질 때까지 최대한 물 속 깊은 곳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미카는 눈이 휘둥그레진 안전 요원과 미카가 여태까지 최고 기록이었던 루크의 잠수 기록 갱신해버렸다는 호들갑을 떨고 있는 루크의 친구들과 루크와 마주쳤다. 그 아이들은 미카의 놀라운 수영 실력과 잠수 실력은 물론이고 미카가 이 전에 축구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든 미카와 가까워지기 위해 서로 경쟁하듯 미카에게 다가왔다. 미카는 메간과 같은 또래 아이들처럼 겉모습을 치장하고 ‘여자’다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와 자신의 운동 실력과 힘을 극찬하는 남자 아이들 세계 사이에서 혼란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미카는 과연 외면의 변화보다 내면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아직도 상처 속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살뜰히 돌봐주는 아빠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을까? 다른 또래 소녀들과는 조금 다른 한 소녀가 과거의 트라우마와 사회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발견해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저자 소개>

니나 채프먼 (Nina Chapman)은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녀는 CU Denver에서 문예창작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덴버에서 가족들과 살고 있다.